

제14회 대학(원)생 지식재산우수논문공모전

지식재산 국내외 최근 동향

하홍준(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2018. 6. 27.

목 차

1. 지식재산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1. 지식재산

의의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등을 총칭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을 의미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구분
- 산업재산권은 출원, 심사, 등록의 절차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등은 창작성만 인정되면 등록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호

1. 지식재산

산업재산권

구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 명한 것 (대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 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 게 쓸 수 있도록 한 물건 에 대한 고안 그 자체 (소 발명, 개량발명)	물품(물품의 부분 포함) 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 문자 ·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 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 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부정경쟁행위를 방 지하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
예시	벨이 전자를 응용하 여 처음으로 전화기 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 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 조 등에 관한 고안	탁상전화기를 반구형 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 한 형상 · 모양 · 색채 에 관한 디자인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 · 마크 등	부정경쟁행위와 영 업비밀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 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 부터 10년 (구법 적용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 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 적 권리)	무제한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영업비밀 보호 강화

- 오늘날 기술은 기업의 가치 창출은 넘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
 - 기업 간 그리고 국가 간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
 - 기업 및 국가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와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통해 자사 또는 자국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노력
 - 기술의 발달, 산업의 전문화 및 세분화, 기업 간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등으로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
 - 각국은 국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협력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 강화 모색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영업비밀 보호 강화

- 미국은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이하, “DTSA”)’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법제를 획기적으로 변화
 - DTSA는 영업비밀 침해 시 당사자가 연방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법으로, 동법에 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가 형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민사적 조치로 확대
-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로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
-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서 영업비밀의 정의, 불법행위의 범위, 구제수단 등을 규정한 ‘영업비밀 지침(Directive 2016/943, EU Trade Secrets Directive)’이 채택되어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 기반 마련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브렉시트(Brexit)

- 브렉시트(Brexit)는 2016년 공식화되면서 유럽연합(EU)이 수년간 공 들여왔던 단일특허(Unitary Patent)제도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의 미래 또한 불투명
-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은 유럽연합(EU)의 통합된 특허체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된 계획으로 단일특허규칙,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 통합특허법원협정의 세 가지가 필수 요건
- 통합특허법원협정은 프랑스, 독일, 영국을 필수 비준국으로 하여 총 13개 EU 회원국의 비준이 요구되는데, 브렉시트로 인해 EU 회원국의 지위를 잃게 되는 영국이 필수 비준국으로서 유효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단일특허제도는 그 근간부터 흔들리게 됨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제4차 산업혁명

- 최근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증
 - 한국에서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증
 - 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이 유의미한 기술 발전을 가지고 왔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견해 제시
- 전 세계 각국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특허가 폭발적으로 성장
 - 부가가치 창출규모는 11.9조 ~ 35.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제4차 산업혁명

-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제46회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 기술이 인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논의
- 다보스포럼에서는 ‘인공지능·로봇·바이오·나노기술·사물인터넷·빅데이터·드론·자율주행자동차·3D 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을 통해 기존 산업영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전망
- 세계경제포럼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서,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정의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

- 2000년 대 초반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기술도입국 혹은 모방국으로 인식되었으며 2000년 중국의 특허 출원건수는 미국과 5.7배, 일본과는 8.1배의 격차
- 불과 10여 년만에 중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세계 지식재산 강국 IP5의 반열에 등극
- 중국 국무원은 2017년 1월 발표한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계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에서 세계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과 지식재산권 국제영향력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
-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불균형, 낮은 보호수준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이 어떻게 한계를 돌파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해낼지 귀추 주목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1.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경쟁력

주요 내용

- 최근 글로벌 경제는 3차산업혁명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이행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 * 1차산업혁명: 증기기관(18C), 2차산업혁명: 전기기술(19C),
3차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20C),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21C)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가 필수 조건
- (신기술 개발 장려를 위한 IP보호제도 마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 마련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호제도 마련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2.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의 접목

주요 내용

- 최근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관련기술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후발 주자 위치
 - * 2016년 기준 이전 10년간 인공지능(AI)관련 특허출원건수
미국: 24,054건, 일본 : 4,208건, 한국: 2,638건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성 대두
 - ※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의 권리귀속, 빅데이터의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복제전송에 대한 면책규정,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제3자 제공 등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3.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

주요 내용

- 중국 정부의 특허인프라 강화 정책과 함께 특허 활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춰 명실상부한 특허 강국으로 변화
 - 국가 주도하의 강력한 4차 산업혁명 대응
 - 중국 국무원은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혁신전략으로 제시하여(‘15) 제조업 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 핵심기술별 발전계획 수립·시행, IP 창출과 표준화 연계 및 IP 보호 강화
- * 시진핑 주석 :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지재권 침해자 엄벌 강조(’17.7)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4.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정책 강화

주요 내용

-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IP 정책 수립
 - 미래투자회의(의장 : 아베 총리)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미래투자전략 2017’ 발표(’17.5)
 - 빅데이터·AI의 활용을 촉진하는 IP 시스템 구축 및 IP 활용 촉진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적극 추진
- * 아베 총리 : 스마트 사회의 기반이 되는 IP 제도의 정비 방침을 발표(’17.5)

【국가별 주요 혁신 및 IP 전략】

구 분	중 국	일 본	미 국	독 일
혁신전략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미래투자전략2017	AMP	인더스트리 4.0
IP 전략	핵심기술 IP 창출 및 표준화 연계	데이터·AI 활용 촉진 IP 시스템 구축	IP 보호 강화	IP 보호 강화 및 국제 표준화 주도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5. 공유시장경제와 지식재산의 상생

주요 내용

- 테슬라, 우버,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지식재산 공유를 통해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기업들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국내 4차산업 발전에 접목해야 할 필요성 제기
-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지식재산의 독점성 유지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편적인 이용의 한계로 사장될 수 있음
 - 4차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유행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편 사용이 늦어져 철 지난 4차산업혁명 신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견
 - 오픈소스 등을 통해 새로운 부와 이익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견해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6. 지식재산 금융 5년내 1조원으로 확대

주요 내용

- 현재 3500억원 수준인 지식재산 금융을 5년 안에 1조원으로 확대해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가진 사람들의 창업을 지원해 나갈 것
 - 제 52회 발명의 날 기념식, 이낙연 국무총리 발표(2017.6.14.)
- 특허를 활용한 창업이나 지식재산 보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임

<주요 지원 정책>

-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 기존 지식재산 보증·담보대출 중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미래 가치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투자형 IP 금융' 증가
- 중소·벤처의 사업화 단계별 자금 수요에 따라 IP평가 결과를 활용한 투·융자 지원을 강화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7. 중소기업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은 99%의 사업체와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경제구조로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함
-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
 -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
 -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8. 지식재산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

주요 내용

-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고급인력에 의한 창업 미흡, 성공사례 창출 부진 등 질적 성장의 한계와 인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정책입안자들의 정책방향은 창업생태계 혁신, 창업기업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통해 창업·벤처 붐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함
- (제안방안) 투자 중심의 성장 생태계 조성, 벤처확인제도 개편, 창업벤처 정책의 거버넌스(Governance) 재편, 기술창업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
-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 필요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vs 퀄컴과징금 소송전

주요 내용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역대 최대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2017년 1월 20일)
 - 퀄컴은 이동통신 모뎀칩셋 관련 시장지배력을 남용
 - 요청이 있을 때 휴대폰 업체, 모뎀칩셋 업체와 다시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하도록 퀄컴에 시정명령
-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두고 세기의 '소송전'
 - 퀄컴은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 공정위는 대응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
 - 소송 핵심 쟁점은 퀄컴 라이선스 방식의 불공정성,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 절차의 공정성 여부
 - 퀄컴이 20년 동안 시장지배력을 유지해온 비결인 라이선스 방식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

3. 연구원 선정 2017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10. 유럽통합 특허법원 설립 지연

주요 내용

-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개별 국가별로 특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과 판결의 효력이 해당 국가에 한정되는 한계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 유럽통합 특허법원을 설립에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
 -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영국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 발생
 - ※ 영국 정부는 탈퇴 협의에 관한 50조를 아직 발동하지 않았고 유럽연합 탈퇴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통합특허법원을 준비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유럽연합 탈퇴후 통합특허법원 참여에 대해서는 조문 등의 개정에 대한 협상 필요)
 - 독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계류 중이며, 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에서 의결된 통합특허법원 법안에 대한 비준을 중단할 것을 요청(2017.6)
- 통합특허법원 협정은 프랑스, 영국, 독일이 반드시 포함된 13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14개 국가에서 비준하였지만 영국, 독일의 비준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 영국과 독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2018년 유럽통합 특허법원이 발효될 것이며, 20여개 체결국과 함께 출범 예상됨

감사합니다